

불자가수회 김활선 회장 취임



대한불자가수회는 2월 27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김활선(사진) 제3대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불자가수회 지도위원 일봉, 조계종 포교 연구실장 정호스님, 한국연예협회 김광진 가수분과위원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김활선 신임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회원들의 수행정진과 자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불자 가수회의 특성을 살려 군법당,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위문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불교와 불법을 홍보하는 모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인교사불자회 정초기도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이호영)는 2월 23-24일 천은사, 선암사, 향일암 등지에서 정초 기도법회 및 사찰순례를 진행했다. 이호영 회장 등 회원 및 회원 가족 1백여명이 동참한 이번 법회에서는 예불과 용맹정진, 성보 참배, 관음기도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법회에서 서울경인교사불자회 회원들은 "불교 수행을 통한 교사의 길을 가고자 지리이타의 삶과 청소년 포교에 임의를 담당하자"고 서원했다.



한나라당신도회 신년 대법회

한나라당불교신도회는 2월 22일 여의도당사 대강당에서 2002년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회장 총재는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와 한나라당 이회장 총재 부부, 불교신도회 합동회장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직장 직능 수행단체들이 잇달아 결성되고 있어 직장 내 신행 및 포교활동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충남경찰청과 관내 14

직장 신행단체 결성 잇달아

개 경찰서의 불교회가 동시 결성됐고, 제주도내 최초로 사칭 불자가회가 결성한다 이어 평택 사칭 불자가회가 6일 창립된다.

충남경찰청 불교회 창립

3일 상무관서, 관내 14개 경찰서 불자회도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충남 관내 14개 경찰서가 일제히 경찰불교회를 창립해 충남지역 경찰 포교 활성화를 위한 직장 직능 수행단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지방경찰청과 대전중부, 서산, 아산 경찰서 등 14개 경찰서 소속 5백여명의 경찰불자들은 3일 충남지방경찰청 내 상무관서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경찰불자들의 화합을 다짐했다. 이로써 대전전산, 천안, 공주경찰서 등 기존의 불교회가 조직돼 있던 5개 경찰서를 포함해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서에 경찰불교회가 구성됐다.

전국경찰불교회 김중겸 회장이 지난해 10월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창립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 충남지방경찰청

전국경찰불교회와 연대

단체별 교리강좌·포교부 구성

불자들은 친목모임에 머물렀던 기존의 불자모임을 발전시켜 경찰불교회를 발족하게 됐다. 충남지방경찰청과 19개 경찰서 경찰불교

회는 향후 미진한 조직 구성을 완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찰내 포교활동 강화와 회원 확대, 회원 자질 향상, 충남지역 연대활동 강화 등 내실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 단위의 교리강좌 개설, 포교부 구성, 성지순례는 물론 연합법회, 수계정진법회 등 대전·충남지역 불교단체 및 전국 경찰불교회와의 연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회원들의 다양한 신행활동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 및 대인지원 등을 전개한다.

한편 충남지역 경찰불교회는 전국경찰불교회의 충남지부와 지회로 공식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전국경찰불교회는 인천, 울산, 강원, 전북을 제외한 전지역에 지부와 지회를 거느리는 대규모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제주 첫 '시청불자회' 결성

2월23일 제석사에서, 회장에 박용현 외도동장

2월 23일 제주시청불자회가 창립한데 이어 6일 경기도 평택시청공무원불자회가 창립한다. 올해들어 광양시청, 창원시청, 함양군청에 이은 공무원불자회 창립이다.

평택시청불자회(창립준비위원장 안성현)는 6일 평택시 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평택시청불자회는 두차례의 발기인모임을 통해 50여 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청불자회는 6일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 선출과 지도법사 추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

이다. 제주도 관내에서는 최초로 제주시청불자회가 2월 23일 제석사에서 창립했다. 지

"제주도청 등 단체구성 지원"

평택시청불자회 6일 창립

난해 3월 창립을 추진했다가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기된 바 있는 제주시청

불자회는 외도동 박용현 동장 등 뜻있는 불자들이 합심해 50여 회원을 모집했다.

제주시청불자회는 교리 학습과 봉사활동 등 회원들의 불자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봉사활동, 회원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새롭게 창립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청을 비롯해 서귀포시청, 남·북제주군청의 불자회 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박용현 외도동 동장은 "불교적인 소양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 불자상을 세우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불법에 근거한 구도적인 자세와 회원 상호간의 신행활동을 돕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용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과천 5개정정부부처 연합법회

"유대강화·정보공유 가능"

건설교통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과천시청사 5개 정부부처는 11일 오후 7시 서울 양재동 구름사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이들은 이번 연합법회를 계기로 이달부터 매월 둘째주 월요일 구름사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회는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불자회가 공동으로 청계사, 보광사 등지에서 연합법회를 열어왔으며, 각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법회를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불자회 강인준 총무는 "5개 부처가 함께 법회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유대감을 키울 수 있고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법회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 수계법회 등 일반 사업까지 공동으로 추진하여 불자회 운영 효율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법인설립·교수불자대회 교불련을 사업 확정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2월 28일 대불전 만해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2년도 예산 및 사업을 확정했다.

교불련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춘추 학술발표대회와 세미나 형식으로 각 불교현안을 다룬 교수불자대회 등의 사업을 벌이는 한편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군경찰서 법당마련 총력"

충남경찰청 불교회 유한동 초대회장



충남지방경찰청 경찰불교회는 3일 충남지방경찰청 내 상무관서에서 열린 창립법회에서 초대회장에 유한동(49) 정보4계장을 추대했다.

유한동 초대회장은 "충남지역 경찰불자들의 화합과 자아 성취는 경찰불교회를 구성한 회원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민

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모범 경찰불자로서 거듭나자"고 소감을 피력했다.

유 회장은 불심이 깊은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접했으며, 현재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매일 1회 이상 인근의 둔산 세동선원에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심이 돈독한 불자다.

경찰불교회 창립 이전부터 친목 불자모임을 이끌어왔던 유 회장은 "충남지방경찰청 뿐만 아니라 모든 관내 경찰서의 불교회를 동시에 창립하기 위해 시·군 경찰서에서 불자들을 찾는데 가장 애로가 많았다"면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활동하는 적극적인 불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시·군 경찰서에는 법당이 없는 점이 안타깝다는 유 회장은 "임기동안 관내 시·군 경찰서에도 종교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모임에선

복지부 보련회 운영위원 선임

보건복지부 보련회(회장 김덕중)는 2월 23일 회의를 열고 안소영 여성보건복지과장, 김유경 한방제도담당관 등 7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했다.

1월 26일 김덕중(정신보건과장) 신임 회장을 선출한 직후 조직 준비에 나선 보련회는 이로써 제2대 임원단 및 운영위원 구성을 완벽하고 정부기관 신행모임으로써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덕중 회장은 "정부부처 불자회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대외적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불자들의 신행운을 돕는 불자회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중석조경 석불회 창립8주 법회

대한중석조경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9일 오후 1시 대구 달성 최정사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최정사에서 주지 금봉스님의 법어와 다과회 등 회원들의 우의를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임갑수 회장은 "창립 8주년을 맞으면서 봉사활동, 수련회, 환경보전 등 석불회 활동의 폭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발심하여 건전한 신행활동을 펼 수 있도록 활동을 다양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빛은 불자회 창립 3주 기념법회

한빛은행불자회(회장 소병식)는 16일 오후 4시 30분 본점 5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축하떡 절단, 다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빛은행 불자회는 창립3주년을 맞아 모임의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간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래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에서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로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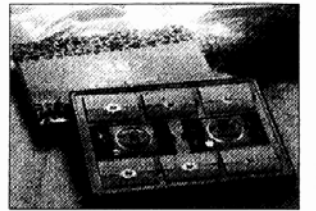
※ 편두통, 디스크,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김(배꼽)에 착용하면 방한약성식품의 성분이 신김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낫니다. 향비는 자연한인 파브르치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마의 맛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김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몸이 아파서 누워서 쉬어야 하는데 두통까지 겹치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김혈)에 찌는 것만으로 좋았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음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활짝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매당되는 증상 () 각시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배가 곱고 딱딱하다
- 11 배나 목부 근처에 갈피 편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말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실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비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생을 당한다